

금속활자, 왕실주도로 발전



■ 똑같은 것을 만들려는 인쇄욕망

서양에서도 처음에는 인쇄의 기능이 대량생산보다도 트럼프(카드)의 뒷면 모양이 똑같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증세의 타롯에서 시작한 트럼프의 카드는 뒷면 모양이 구별되지 않도록 같게 만들지 않으면 점치기나 게임에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불(佛)의 존재와 같은 것, 하나의 달이 동시에 똑같이 비추는 것, 그것이 인쇄의 혼이었다. 넷가에 물결이 일면 달의 모습은 비뚤어져 버린다. 맑은 영혼을 넣어 베껴 쓰지 않으면 불력은 옮겨지지 않게 된다. 오자나 오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종교적 힘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베끼는 것은 비추는 것이며 옮기는 것이었다. 손으로 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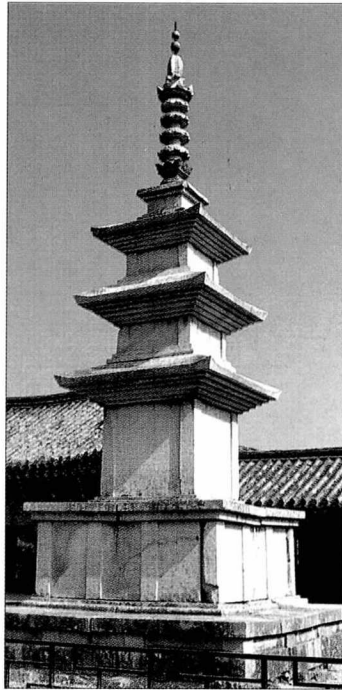
는 필사는 양산의 한계만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복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필사본을 필사할 때마다 오기는 늘어나게 되고 결국 오리지널 원전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버리게 된다.

목판인쇄는 아주 똑같이 복사한다는 점에서는 필사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조각한 조판의 오자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활자는 한자 한자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나 목판인쇄와는 달리 오자를 교체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 정확성과 새로운 조립에 의해 여러 종류의 기록을 만들 수 있다. 오늘날과 비교해 말한다면 DNA를 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활자 자체의 발명 그것이 어찌면 오자를 수정하는 정확함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시대(936-1392년), 경전 등의 판각에 오자가 생겼을 때 판목 전체를 버리지 않고 오자가 있는 부분만을 깎아 고치고 싶은 문자를 만들어 넣었다. 도장과 같이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목도장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불국사 석가탑.

독립된 목활자형과 같은 것이 생겨났으며 이것을 금속으로 주조하면 곧 금속활자가 된다.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무의 활자가 출현했지만 그것으로 인쇄된 예는 드물었다. 목활자는 면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고, 또 반복 사용하면 마멸이 심해져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자를 고치기 위해 만든 나무의 활자가 금속으로 바뀐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금속활자가 대량생산의 기능보다도 오자와 오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목판과는 달리 금속활자로 많은 양을 인쇄하려면 활자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또 목판에 비해 인쇄 속도도 느렸다.

고려사 최윤의(崔允儀)열전에 고금상정예의(古今詳定禮儀) 50권을 주자(鑄字)로 28부씩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241

년 추정).

종류의 많음에 비하면 인쇄된 부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인쇄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문자의 교체에 의한 수정이 자유롭고 새로운 조립에 의한 여러 종류의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품종 소량주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윤병태교수는 '엄격한 교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활자로 인쇄하는 쪽이 훨씬 편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엄밀한 교정을 행한 활자 인쇄 본을 만들어 각 지방으로 보냈다. 그래서 활자본을 그대로 판목에 베끼는 복각법(復刻法)에 의해 목판을 만들어 다량의 책을 간행했다고 한다. 문자를 하나하나 떼어내도록 한 발상은 '교체'와 '반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기능을 갖춘 것이다. 전자는 교정의 동일성 원리를 살리고 후자는 복제의 원리를 살렸다. 거기에서부터가 인쇄미디어의 갈림길로서 클론의 원리와 대량생산의 원리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경공양에서 출발해 유일 절대의 것을 베끼고 한 한국의 동활자는 전자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시점에서 한자의 오자도 없이 완벽한 동일 복사물을 만들려고 한 욕망이 동일성의 활자문화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근대의 활자는 대중을 목표로 하는 대량지향의 활자문자라고 할 수 있다.

■俗의 시스템과 聖의 시스템

실용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초로 활자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는 송대 필승(畢昇)의 교니(膠泥)활자도 역시 반복의 원리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 (之)라든가 '야' (也)라든가 자주 사용되는 한자 20여개를 특별히 준비해 두었다는 기록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쇄문화의 차이는 인쇄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성(聖)과 속(俗)의 시스템 차이에 있다. 활자가 속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매스프로덕션의 반복 기능이 강조되고 성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정확한 절대적 전범성(典範性)을 추구하게 되면 '교환'의 기술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종교의식까지 높아지게 되고 읽을 수 있다는 기능까지도 잃게 돼 버린다.

서구의 활자문화도 근대 이전에는 성의 시스템 안에서 운



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고생해서 만든 다라니경이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어두운 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한 42행의 성서도 역시 교회의 어두운 서고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동활자가 발명되었을 때 처음 인쇄된 것이 경서(經書)와 역서(曆書) 혹은 율령서(律令書)였던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납(鉛)활자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성서와 문법서와 역서였다. 어쨌든 오자를 허용치 않는 절대성을 요구하는 전적(典籍)들이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의 부수도 200부를 넘지 못했다. 한국의 활자인쇄 시스템이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 동일성의 정확성과 다품종 소량주의를 목표로 한 것은 극히 자연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다량의 서책을 베끼려고 했을 때에는 금속활자판으로 인쇄한 책을 목판에 갈아 복각해 인쇄한 것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 一字一語의 誤字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간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사경공양적 의식에서 출발한 인쇄개념은 더욱 더 강화돼 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의 유교적 이념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것은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춘추사관의 체도였다. 절대왕권의 아래에서도 왕은 그 기록을 보는 것도 글자를 한자라도 고칠 수도 없었다.

500년 동안 역대의 왕들은 이 실록을 인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활자를 몇 십 만개나 만들어 정교한 기술로 인쇄했지만 그 부수는 불과 4~5부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다라니경과 마찬가지로 인쇄된 실록은 4개의 지방 사고(史庫)에 분산 보존되었다.

금속활자이고 목활자여서 몇 번씩 엄격한 교정단계를 거쳐 편찬 인쇄된 실록은 모두가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1점이라도 후세에 남으면 다행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경서를 비롯해서 유교의 표준이 되는 문장의 일자일구(一字一句)를 놓고 시비를 가려 조금이라도 틀린 글을 만들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서 배격되었다. 역사서이며 경서인 활자인쇄는 일자일어(一字一語)의 오자를 남기지 않는 절대성을 위해 사용돼 왔다.



◆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마찬가지로 문자의 기원에도 이집트의 신성문자와 규약성이 강한 페니키아의 실용문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같은 한자에서도 성(聖)의 전자(篆字)와 속(俗)의 예자(字) 구별이 있었던 것처럼, 금속활자의 기원에서도 성이 되는 것과 속이 되는 것의 미디어로서 나뉘고 있던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만 동(銅)의 월인(月印)’을 움직이게 한 것이 ‘성(聖)되는 기복(祈福)의 손’이었던 것처럼 ‘26명의 납의 병정’을 지휘한 것은 ‘속(俗)이 보이지 않는 욕망의 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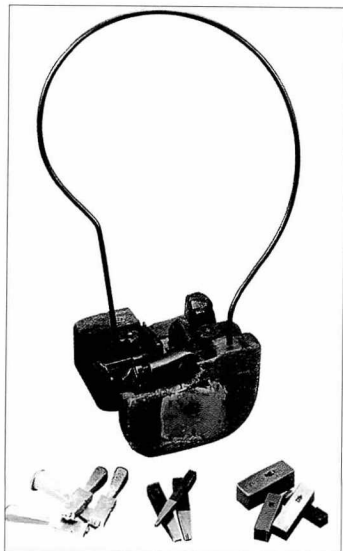
기술결정론의 허구 맨포드와 벤야민의 설

서양에서는 활자의 발명이 ‘조합(組合)’과 ‘반복’의 근대기술 원형이라 보여지며 곧 헨리 포드의 대량생산의 매프로덕션과

현대의 매스미디어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생각되었다. 활자의 본래 기능은 “일반적이고 획일적이며, 누구나 읽기 쉽고, 그리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 규격표준화라는 점에 있어서 쉽게 조판할 수 있는 활자는 맨 포드가 말한 대로 총의 표준화에 앞서는 인간 최초의 발명인 것이다. 또 활자가 책의 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져 왔다. 그래서 활자인쇄물은 오리지널이 아닌 복제문화의 원조로서 일컬어져 온 것이다.” 그 하나가 W.벤야민(1892-1940년)의 유명한 복제기술론이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복제기술은 오리지널이라는 유일한 것에 대한 아우라(Aura: 예술개념)의 개념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사와 복제는 아우라라고 하는 예배에서 분리, 그 대상을 ‘공간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깝게 끌어 당기려는 대중의 절실한 요망’이라고 하는 것이 벤야민의 주장이다.



◆ 서양식 납활자 주조틀

그렇지만 한국의 금속활자는 그러한 주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알파벳과는 달리 복잡하고 방대한 활자량이었지만 활자의 개발은 읽는 기능보다는 서체에 따르고 있었다. 조선왕조에 들어 1403년 최초로 주조된 계미자(癸未字)를 비롯해 갑자자(甲子字) 갑인자(甲寅字)가 잇달아 주조된 활자는 심미성을 잃지 않았으며 서체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더욱 더 예쁜 갑인자는 일명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위부인이라는 사람은 왕희지(王羲之)(307-65년경)의 스승이다. 특히 갑인자 부족분의 활자는 나중에 세조왕이 된 수양대군이 자신의 손으로 쓴 글자에 의해 주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사경공양을 한 고려왕조와는 달리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했지만 동활자의 사용법은 마찬가지로였다. 인쇄기술은 아우라의 소멸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아우라 그것을 창제하는 것이었다.

또 동시에 교정지향의 복제기술은 오리지널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리지널한 것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었다. 그것이 종이에 먹으로 쓴 하드로서의 서책개념에서 구별돼 있었던 전적(典籍)이다.

‘전(典)은 두 손으로 책(冊)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 혹은 책상의 위에 바치고 있는 책자를 나타내고 있는 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고전이 단지 오래된 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전(典)은 어떤 기준이 되고 법규가 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책을 의미하고 있었다. 전범(典範), 전고(典故), 법전(法典)과 같이 만인과 만세자손, 오랫동안 전상(典尙)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폐사어(廢死語)가 된 전상이라는 말은 책을 숭상하는 것이며 벤야민의 아우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대의 인쇄기술로 만들어진 복제품 서적이라도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결코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제멋대로 취급하거나 하지 않는다. 서적에는 무의식적으로 전적(典籍)의 아우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승려와 귀족과 필사생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동활자는 왕실의 관리와 승려와 사대부의 지식인들에 의해 비호돼 발전해 갔다. 동활자의 주조를 한 것은 관이며, 절이며, 서원이었다. G